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6.17. ~ 6.23.)

| | | | |
|---------------|---|-----------|-------------------|
| 이번 주 읽을 본문 | 가정 | 신 22 - 28 | 시 110 - 119:25-48 |
| | 개인 | 사 49 - 55 | 계 19 - 마 3 |
| 이번 주 암송구절 | 바른 교회 - 교회(2) | | |
| | <p>고린도전서 3장 10-11절</p> <p>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p> <p>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p> | | |



요한계시록 19장 /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개요**

1-10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고

11-21 백마를 탄 자의 싸움 예고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써 성도들과 천사들이 부를 찬송의 노래입니다(1-5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부르는 노래와 함께 또 다른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고하는 노래입니다(6-10절). 어린 양의 아내는 음행하는 여자와 대조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계 17-18장).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야기했던 이미지를 반영합니다(렘 2:2, 31:32; 겔 16:6-14; 호 1-3장). 이 일에 앞서 어린 양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11-21절). 어린 양은 백마를 탄 용사로 묘사되며(11절), 하늘 군대는 그를 따릅니다(14절). 전쟁을 위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13,15,21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한 묘사로서 대적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묘사합니다(15,17-21절; 시 2:9; 사 63:6).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도 묘사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백마를 탄 용사로도 서술됩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미혹했던 모든 세력이 그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오늘 주어진 삶을 성결하게 살며 주님과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날들을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6월 18일(화)

신23

시112,113

사50

계20

요한계시록 20장 / 천년 왕국

개요

1-10 천년 왕국

11-15 둘째 사망

주님의 싸움은 대적들의 우두머리인 용(사탄)을 굴복시키기까지 계속 됩니다. 천사가 용을 무저갱에 천 년을 결박하였다가 잠깐 놓일 것입니다(1-3절). 천 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주요 견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전천년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 지금이 천 년(상징적인 수)이라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어느 견해를 택하든지 확실한 것은 사단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이며,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4-10절). 하나님의 보좌에서 최후 심판이 내려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11-15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날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확실한 최종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심을 두길 원합니다. 그 날을 헤아리며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지금부터 그 날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승리로 인한 큰 기쁨과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사탄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에 기뻐할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그 날이 이르기까지 허락하신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6월 19일(수)

신24

시114,115

사51

계21

요한계시록 21장 / 새 하늘과 새 땅

개요

1-8 새 하늘과 새 땅

9-27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1,2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3,4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5-8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한데(10,11,18-25절), 그 성은 구약(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과 신약(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9-14,26,27절).

온갖 보석과 아름답고 잔귀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됨으로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줍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그 날에 성도들은 모든 아픔과 눈물을 잊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지금의 눈물과 수고는 주님 앞에서 모두 인정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개요**

- 1-5 생명수와 생명나무
5-21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그 강을 중심으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취주시며, 그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1-5절). 장차 있을 이 일들에 대한 계시는 오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격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며 복을 누릴 날이 머지 않았다는 위로입니다(6,7절).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계시의 말씀 안에 위로와 힘을 얻어 믿음의 싸움을 이길 것입니다(8-19절). 그 날을 고대하는 백성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0절)

주님의 계시는 진실로(아멘)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계시는 이처럼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힘을 주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입니다. 계시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그렇게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날이 이르기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장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개요**

1-17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8-25 예수의 나심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 배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서술하며 14대씩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1-17절).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으며,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18-20,24,25절). 천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인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21절). 또 그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음을 드러냅니다(22,23절; 사 7:14).

예수님이 오신 일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건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고 다윗에게 약속된 완전한 나라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죄에서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성취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 인도하시는 하나님**개요**

1-12 동방 박사들과 헤롯

13-23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

예수님이 나실 소식이 전해지자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였으나 헤롯은 두려워합니다(1-8절).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9-12절). 또한 하나님은 요셉 부부를 인도하시어 그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시는데, 그때 헤롯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입니다(13-18절).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고 하나님은 요셉 부부를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십니다(19-21절). 그리고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자, 또 다시 인도함을 받아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22,23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세세하게 나타나있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들과 요셉 부부를 순간순간 인도하시어 도우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역사로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도 주님이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신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3장 / 세례 요한**개요**

1-12 요한의 외침

13-17 요한의 세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사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외칩니다(1-4절; 왕하 1:8).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2절) 많은 사람들이 나아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진실한 회개를 요구합니다(4-10절).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권세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그는 오실 이를 소개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11,12절).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포하십니다(13-17절; 시 2:7; 사 42:1).

예수님은 구약 약속의 성취로(마 1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마 2장), 선지자를 통해 소개됩니다(마 3장). 소개의 끝은 하나님 자신의 인증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인데, 그 날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취될 것이며, 더불어 성도들의 소개로 그 날이 올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요한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
| |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
| | |
|--|--|

복음과 삶 - 정의(1)

Part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1. 도시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Part 2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 마음 - 세 가지 삶의 방식
3. 우상숭배 - 가장 근본적인 죄

Part 3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4. 공동체 - 변화의 장
5. 전도 - 대안적 도시

Part 4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6. 직업 - 동산을 경작하기
7. 정의 - 타자를 위한 사람들

Part 5 복음은 우리의 영원을 바꾼다

8. 영원 - 앞으로 다가올 세상

타자를 위한 사람들

불경건한 갈릴리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단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 도울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

- 로마 황제 줄리앙(AD360년경)

[거대한 전염병 기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모든 필요를 보살피고 원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들 대신 죽었다. [이방인들은]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 처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은 멀리 보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렸다.

- 디오니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AD260년경)

'살롬'은 보통 '평화' 혹은 '평화와 변영'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살롬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영역 -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영적 - 의 총체적 형통을 의미한다. 즉, 원래의 상태, 원래 되어야 할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신체는 모든 장기들이 함께 기능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롬과 정의를 구현할 의무와 책임을 가졌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내면의 살롬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사회 문제를 지금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다룰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엮는 다리가 되라. 창조 세계의 찢어진 낱실과 씨실을 다시 짜기 시작하라.

- 팀 켈러

1. "사회 문제는 지금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다룰 수 없다"는 평가에 동의하나요?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었다. 설교를 들은 누군가가 나중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에드워즈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적용해서 답변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의 규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손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우리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들이 우리의 문제나 필요보다 훨씬 크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의 짐이 가벼워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고 해야 한다. 그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서로 짐을 지라는 규칙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가볍게 할 의무가 결코 없고, 단지 우리가 짐을 나누어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웃의 짐을 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시간적 여유, 재정, 감정 자원을 갖고 사람들을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에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나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 12:15)

3. 내 주변에 우는 자들이 있나요? 함께 울 사람들이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정의로 우리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할 건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연약하고 무관심했던 우리 마음을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위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